

“영암 국사봉이 전남의병전쟁 지휘본부였다”

‘영암의병사연구’ 세미나

박해현 교수, 남도 최대의 의병부대 ‘호남의소’ 영암 금정면서 결성 주장

‘영암 의병사’를 최초로 정리한 초당대 박해현 교수와 이 분야 전공교수들이 참여해 영암의병사 세미나가 열려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9일 영암군청 왕인실에서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주최하고 영암문화원(원장 김한남)이 주관한 ‘영암의병사 연구’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 ‘영암의병사 연구’를 공동 저술한 박해현 초당대 교수의 ‘한말 영암의병’과 조복전 영암역사연구회 회장의 ‘임진왜변과 영암’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이홍길 전남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오수열 조선대 명예교수와 이종범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등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는 그동안 규명되지 못한 영암의병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영암 의병들의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또 영암 의병사를 최초로 정리해 ‘영암의병사연구’ (영암문화원)를 공동 집필한 박해현 교수와 이 분야의 전공 교수들이 토론을 벌였다.

식전행사로 영암중(교장 정미화)과 영암고(교장 김병현)의 연합 합창단이 ‘신독립



지난달 29일 무안군청 왕인실에서 영암군이 주관하고 영암문화원이 주최한 ‘영암의병사 연구’ 세미나가 열렸다.

군가’를 청중들과 함께 부르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제일의병장 심남일 의병장, 강무경 의병장, 김치홍 의병장 등 영암의병들의 후예와 전석홍 전 보훈처장관, 유인학 전 국회의원 등 재경, 재광 향우 등 400명 넘는 군민들이 참석했다.

무등일보에 연재 중인 ‘새로 쓰는 광주·전남 3·1운동사’를 집필 중인 박해현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영암은 ‘호남 의병의 성지’로 자리매김해도 좋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역사에서 완전히 잊혀 있었다”고 지적하고, 영암 의병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1907년말 ‘호남창의소’라는 의병부대를

영암에서 결성한 영암의병들은 함평에서 영암으로 이동한 심남일 의병부대와 연합해 남도 최대의 의병부대인 ‘호남의소’를 영암 금정면에 있는 국사봉에서 결성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일본군 중대급 기병부대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영암에 배치될 정도로 치열한 격전이 치러졌다고 말했다. 특히 심남일 의병부대는 일정한 지휘본부를 두지 않았다는 기존 견해와는 달리, 국사봉이 전남 중남부 지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의병전쟁의 지휘본부임을 밝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박 교수는 그동안 연구자들이 미처 이용하지 않은 일본군 14년대 ‘진중일지’를 이

용해 영암 의병들의 부대 현황 및 일본군과 치러진 전투상황을 복원하고, 국사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의병전쟁의 양상을 실증함으로써, ‘영암 의병’이 한말 ‘호남 의병’의 핵심임을 입증했다.

박 교수는 “영암에서 결성된 의병부대만 후기의병(정미의병)이 17개나 되는 등 다른 지역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의병전쟁을 치른 영암 의병은 의병전쟁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병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더불어 의병 전적지를 정비해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암=김철진기자 kcj714@srb.co.kr

“올 추석에는 강진 햅쌀 드셔보세요”

강진군이 청정지역 강진만의 도암간척지를 비롯, 해안 간척지에서 재배한 2019년산 햅쌀을 강진농협통합RPC 등에서 본격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햅쌀은 도암면과 신전면 도암간척지와 옥전리 일대에서 재배한 조생종이다. 논 벼 재배면적 8천239ha의 4.2%인 350ha에서 밥맛이 좋기로 명성이 자자한 조평벼, 전남3호 등을 도정, 판매에 들어갔다. 조평벼와 전남3호는 남부평야에서 4월 말~5월 상순에 모를 심는다. 이삭 패는 시기가 7월 10일경으로 기존 조생종보다 빨라 8월 중·하순에 수확이 가능하다.

‘도암 간척지쌀’ 브랜드로 판매되는 햅쌀 가격은 택배비 포함 10kg은 2만8천 원에 판매하고 있다. 강진군쌀판매사이트(<http://gangjinsal.co.kr>) 또는 판매장구(080-434-2070, 061-430-311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만 청정 간척지에서 재배한 강진군 조생종 햅쌀은 병해충 피해 없이 재배가 가능해 밥맛도 뛰어나 추석명절 제수용으로 인기가 높다”며 “고품질 벼 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애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원준기자 jun097714@srb.co.kr

완도군 치매안심센터 5일 개소

완도군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돼 오는 5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치매안심센터는 국비 9억9천만원을 투입해 308㎡(90평) 부지에 2층 필로티 구조로 건립됐다. 검진실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가족 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조기 검진, 상담, 사례 관리,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그동안에는 보건의료원 3층에 임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돼 왔다.

완도군 치매안심센터 김선중 센터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예방관리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완도=조성근기자 chosng11@srb.co.kr

해남군-군의회, ‘로컬푸드사업’ 혼선

직매장 건립 관련 예산 52억 통과 부결된 사업 밀어부치기 ‘행정불신’

해남군의회가 최근 제295회 임시회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 및 관련 예산 52억여원을 통과시킨 가운데 부결된 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더욱이 지난 6월 군의회는 부결된 사업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로컬푸드 사업을 가결,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해남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최근 제295회 임시회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 및 관련 예산 52억여원을 통과시켰다.

또 작은영화관 건립사업도 2016년 토지매입비 15억원을 군의회에서 부결해 국비

를 반납한 이후 지난해 7월 청소년문화센터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의회는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경우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밀어부치기식 표결을 통해 결과를 뒤집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은영화관 건립 부지는 군이 지난해 7월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이를 뒤집어 작은영화관 부지를 확정했다. 또 2015년 시작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도 의회가 사업을 부결했으나 군은 별다른 사유 없이 재추진을 결정했다.

주민들은 “사업이나 부지 등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데도 군의회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남=박혁기자 md181@srb.co.kr

목포시, 내년 정부예산 6천363억 반영

수산식품수출단지·해경정비창 등

목포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시 관련 예산이 신규사업 56건 576억원 등 총 101건 6천363억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천467억원보다 896억원(16.3%)이 늘어난 규모다.

김중식 목포시장장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박지원·윤순호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해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해왔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사업, 국도77호선(압해-화원)연결도로 개설, 남해안철도(목포-보성간)건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전남스마일센터 설립 등이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



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됐고, 정부예산안에 시설계획비 24억원이 반영됐다.

수산식품 수출단지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목포 대양일산산업단지내 수산식품 가공 및 유통, 수출·창업지원, R&D 등을 통합한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수산식품산업용 고도화해 전남의 수출 전략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목포=박민성기자 mspark214@srb.co.kr

함평군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선정

함평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방범, 방재, 교통 등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는 도시안전망 조성사업이다. 지난 8월 실시한 이번 공모에는 전국 34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함평군을 비롯한 12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함평군은 국비 6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올해 연말까지 군 CCTV통합관제센터 내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기반이 구축되면 함평군 지역 187개소, 721대의 CCTV 영상이 통합돼 112 범죄영상 지원, 112 현장출동 지원, 119 응급구조 지원 등의 재난상황 긴급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어린이,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의 골든타임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스마트시티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서비스 모델을 적극 개발해 지역안전지수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함평=정창환기자 jct3857@srb.co.kr

광주 최대 변화가! 최고 광고효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전광판 광고 (신세계안과 옥탑)

01 광주 최고 유동인구 밀집지역

신세계백화점, U-Square, 광주종합버스터미널, e마트 등

02 광주 최대 광복대로에 위치

20차선 차량 정체 극심 지역, 57개 버스노선 경유지(광주 최대)

03 무등일보, 뉴시스 뉴스와 생활정보 편성, 높은 주목도!

04 두 개 (무진대로, 죽봉대로) 광복대로에 노출되는 광고효과 X2

1일 100회, 월 3,000회 노출!! (20초 광고 기준)

▶ 스크린 크기: 13.6m x 7.7m ▶ 해상도: LED풀컬러 국내 최고 화질

▶ 하루 18시간, 20구좌 상영광고노출 ▶ 광고노출 시점: 계약 즉시 가능

믿을 수 있는 그룹의 No.1 광고회사

SRB 문의 062) **510-4650**